

01 교회소식**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의사들**

하나님의 권능을 의학으로 밝히는 전 세계 기독의사들의 모임인 WCDN 제14회 콘퍼런스가 러시아에서 개최되었다.

02 생명의 말씀**온전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다시 쌓지 않으며 꾸준히 선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03 간증**“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WCDN 주최, ‘제14회 러시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시 발표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치유 사례를 소개한다.

04 특집**하나님 권능을 의학으로 밝히다!**

결핵, 실명, 복합골절 등 갖가지 질병이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유됐음을 의학으로 입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은혜의 현장.

만민뉴스

제812호 2017년 11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의학으로 입증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제14회 WCDN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러시아 개최



지난 10월 20~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4회 WCDN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열렸다.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된 사례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초교파적 전 세계 기독의사들의 모임이다.

이 행사는 개최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폴란드, 스페인, 이스라엘, 벨로루시, 불가리아 등 13개국에서 400여 명의 의사들과 의학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사진 2, 6, 9).

영어와 러시아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뤄지는 가운데 첫째 날에는 현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의 설교, 참가국 소개, 조직위원

장 올레 오스트레이코 박사와 WCDN 회장 채윤석 박사의 환영사, WCDN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이재록 목사의 선교 사역이 담긴 DVD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조직위원회 총무 러시아 엘레나 리트비나 간호사가 심각한 무릎관절염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고 치료받은 본인의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3면 참조).

이 밖에 조직위원장 올레 오스트레이코 박사의 뇌종양, 러시아 WCDN 지부장 루이자 무라토바 박사의 결핵, 불가리아 키릴 스빌레로브 박사의 사시, 한국 김준성 박사의 경골, 비골 및 팔꿈치뼈 복합골절의 치료 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WCDN 회장 채윤석 박사의 ‘질병의 원인’과 ‘노아의 홍수’, 싱가포르 데이빗

유 박사의 ‘무안단물’(출 15:25) 특강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부조직위원장 니콜라이 윤치스 박사가 바다의 짠물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단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을 방문한 간증을 하여 많은 의사가 사모함으로 현장에 비치된 무안단물을 시음하고 가져가기도 했다(사진 3, 5).

둘째 날에는 미국 비탈리 피쉬버그 박사의 특강 ‘천국’과 아르메니아 바헤 브니야탄 박사의 실명, 채윤석 박사의 급성 충수돌기염의 치료 사례가 발표되었다(4면 참조). 이어 2018년 WCDN 폴란드 콘퍼런스 조직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내년에 다시 볼 것을 기약하며(사진 8), 올해 조직위원회측에서 이사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마쳤다(사진 4).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바탕으로 준비한 특강 ‘질병의 원인’이 주목할 만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두려움과 질병의 관계 등 심도 있는 질문들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바탕으로 제작한 ‘노아의 홍수’ 영상을 관람한 참석자들은 “내용이 너무 성경적이고 영적이어서 교회나 병원에서도 보여 주고 싶다.”며 영상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직위원장인 올레 오스트레이코 박사는 “러시아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질병의 원인, 영적인 치료 등 콘퍼런스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에 많은 의사

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한 무슬림 의사は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의 현지어 찬양과 무용, 러시아 전통춤 등 영감 있는 공연은 이번 콘퍼런스의 은혜와 감동을 증폭시켜 주었다(사진 1).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책자 전시 부스에는 시종 많은 사람이 몰려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사진 7). 또한 이번 행사는 러시아어권 기독방송 TBN러시아에서 취재해 여러 차례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

본문에서 의로운 해는 메시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광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으로 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며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만을 주려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

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싫어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자신도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악을 품고, 악한 것을 보며 악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는 마음에서 진실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할 수도 없습니다.

2. 온전한 응답을 받으려면

1)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대로 순종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미혹되어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를 어렵게 한 상대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욕심’, ‘사심’,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발견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하지요.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언젠가 또다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약 1:14~15).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뜻에 위배되게 행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사 59:2). 온전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과 선한 행함을 쌓아간다면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한 분량을 채우기만 하면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단번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다면 예전보다 더 선해지고 믿음도 더 내보이길 원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응답에 얹매일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영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죄의 담을 헐고 다시 쌓기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기에만 급급한 것을 봅니다. 응답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자기 기준에 맞춰 대충 해놓고는 “왜 응답이 안 오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온다 싶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아 응답의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10센티가 쌓여 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5센티를 헐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5센티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아직은 온전히 응답받을 때가 아닌데도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가 서운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불평하면서 또다시 죄의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만 생각하고 입술로 쌓은 죄의 담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안 된다. 응답이 더디다.’ 생각하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변화인 것을 알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선으로 생각하며 오래 참을 줄 알면 온전한 응답을 앞당길 수 있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만사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므로,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일굴수록 하나님 축복의 차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루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온전히 벗어내고 다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온전히 버리며 선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항상 온전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찰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난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찰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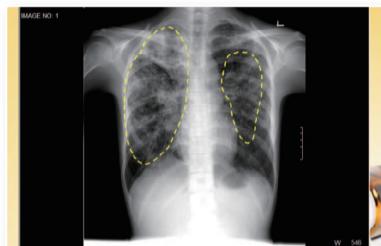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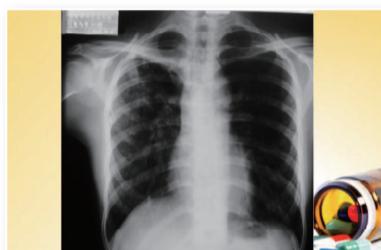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는 모습.



기도받기 전: 양측 폐 전반에 걸쳐 실질을 파괴하는 폐결핵 소견을 보임.



기도받은 후: 양측 폐 전반에 걸쳐 있었던 폐결핵이 깨끗이 치료됨.

결핵 _ 러시아 루이자 무라토바 박사



한주경 친양선교사는 2003년 11월, 공연을 준비하며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 점점 몸에 기력이 없어지고 헛기침이 계속 나왔으며 체중까지 줄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 오른쪽 가슴 대부분에 결핵균이 침범했고 좌측도 침범소견이 심했다.

의사는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폐결핵균이 피를 통해 뇌, 간, 장 등에 전이돼 죽을 수 있다. 설령 치료받아도 폐 손상으로 친양 사역은 계속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침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칼

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숨 쉬기조차 어려웠다. 음식만 보아도 구토를 하고 밤마다 고열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다. 외로움과 좌절 등을 체험하며 호흡하고 기도하고 친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고비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가족, 수많은 성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재록 목사의 권능을 믿었기에 약물치료 같은 세상방법에 일체 의존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자 했다. 결국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고비를 넘겼고, 이후 이 목사가 자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다음날로부터 몸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보기도 싫던 음식들을 너무나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몸의 기운이 채워져 기침이 서서히 줄고 언제인지 모르게 멈추었다. 그 뒤 두 차례에 걸쳐 이재록 목사의 꿈을 꾼 후로 급속히 회복되었다.

2005년 5월, 병원을 찾아 균 배양 검사를 하였고 약 3개월 후인 8월, “결핵균이 모두 사라지고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현재 세계적인 친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실명 _ 아르메니아 바헤 브니야탄 박사



박상영 성도(52세, 사진1)는 1990년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뇌수술을 받은 뒤,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빛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 이후 만민중앙교회 성도가 된 그는 2016년 8월,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수많은 성도가 참석하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단에서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해 줄 때 그도 기도를 받았다. 그때, 왼쪽 눈이 시원한 느낌과 함께 환해졌고 이후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몽골 게게수렌 성도(62세, 사진2)는 학창시절 사고로 머리를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점차 잃다가 실명되었다. 그로 인해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이후 만민의 양떼가 된 그는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은 뒤 왼쪽 시력이 0에서 0.03으로 향상되었고, 오른쪽 눈은 0.5에서 0.7로 좋아졌다.

1

Medical Certificate
Before prayer
After prayer

기도받기 전: 좌측 눈의 광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실명이 확실함.
기도받은 후: 광각이 없던 눈이 0.15의 시력이 나오고 있음.

2

Medical Certificate
Before prayer
After prayer

기도받기 전: 좌측 눈의 시력이 '0'으로 표시되어 있음.
기도받은 후: 전혀 보이지 않던 눈의 시력이 '0.03'으로 나오고 있음.

무릎 관절염 _ 러시아 엘레나 리트비나 간호사



내가 체험한 일이다. 무릎이 너무 붓고 아파 MRI를 활용해 보니,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시간 이상은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뒤, 신기하게도 다리가 가볍게 느껴졌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통증이 전혀 안 느껴졌다. 다음 날로 통증이 사라지고 부기가 빠져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걷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In WCDN Conference in Korea

In fact, if I walked for two hours, I couldn't walk anymore
In fact, if I walked for two hours, I couldn't walk anymore

기도받기 전: 연골이 닳아 앓아져 있고 미란도 보이고 있음.
기도받은 후: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있음.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
- 생명의 씨 1~3
- 육체의 결여 1~3
- 공간과 차원 2~7
- 심고 거두는 법칙 3~4
- 요한계시록 강해 77~84

GCN TV 설교

- 감추인 어두운 (이수진 목사)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미영 목사)
- 순종의 축복 (이미경 목사)
- 목자님의 열매 3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29 (신동초 목사)
- 아말렉과의 전투 (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1
- 마지막 때 1
- 모두 드려요 16
- 청조와 과학 11
- 옛날 옛적에 (시즌2) 7
- 내 마음의 찬양 35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8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화상 4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11월 5일 ~ 11월 11일



최고의 의사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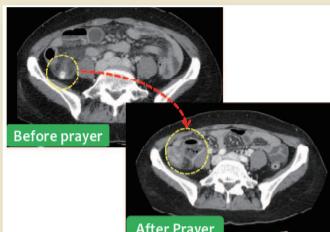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성경이 참임을 의학으로 입증하는 전 세계 기독의사들의 모임인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제14회 러시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 발표된 사례들을 게재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기도받기 전: 충수돌기염의 원인이 되는 분석이 보이고 주변에 염증이 심한 상태를 보임.
기도받은 후: 충수돌기염의 원인이 되었던 분석이 사라졌고 부기도 많이 빠져 호전됨.



기도받기 전: 충수돌기가 염증으로 인해 부음.
기도받은 후: 부었던 충수돌기가 정상이 됨.



기도받기 전: 충수돌기염의 원인이 되는 분석이 보이고 있고 주변에 염증 반응이 심함.
기도받은 후: 충수돌기염의 원인이 되었던 분석이 사라졌고 주변 염증도 없어짐.



급성 충수돌기염(맹장염)은 통증이 매우 심하며, 의학적인 치료는 충수돌기 절제술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수술 없이 하나님께 치료받은 이들이 있다.

이경화 집사(58세, 사진1)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구토가 있었다. 2010년 5월 30일 기도받기 전 촬영한 CT 사진을 보면 우측 하복부에 맹장염을 일으키는 분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6월 6일 CT를 촬영해 보니 보였던 분석이 사라지고 염증 소견도 많이 호전되었다.

김영주 집사(47세, 사진2)도 마찬가지로 심한 복통이 주 증상이었다. 기도받기 전 2014년 7월 30일 복부 CT 사진을 보면, 우측 하복부에 맹장이 염증으로 인해 부어 있다. 심한 통증을 느끼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이후 CT 촬영 결과, 맹장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급성 충수돌기염 – 한국 채윤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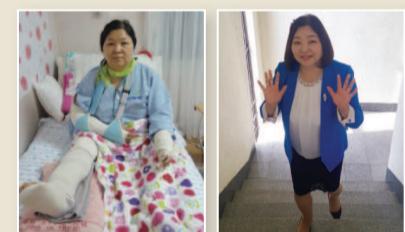


신명진 집사(36세, 사진3)는 이를 동안 심한 복통이 지속되었고, 기도받기 전인 2009년 3월 5일 CT 사진으로는 우측 하복부에 분석이 보이고 주변에 염증이 있어 전형적인 맹장염 소견이었다. 심한 통증으로 구토하였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수록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CT에 맹장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진_ 불가리아 키릴 스빌레로브 박사



경골, 비골 및 팔꿈치뼈 복합 골절 한국 김준성 박사



기도받기 전:
경골과 비골의 분쇄골절
소견을 보이고 있음.



기도받은 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재창
조의 권능으로 골유합이
잘되어 가고 있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찰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
와 NSS-6을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중호중앙길 101호 ☎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 055)2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천길 9 ☎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향민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한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한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한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한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월빌딩 ☎ 061)284-3133, 010-2629-8275
- 부산한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9140-4194
- 사령한민교회 충남 계룡시 계룡로 135 ☎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한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한민교회 광주시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70번길 62 ☎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한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벽동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한민교회 충남 서산시 짐동1길 24 ☎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한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한민교회 충남 이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 041)546-1537, 010-2672-0244
- 인성한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발길 64 ☎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한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한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들판로 355번길 12-1 ☎ 050)648-9107, 010-7224-8891
- 원주한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길 57 (개운동) ☎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한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한민교회 전북 전주시 한림길 30 ☎ 070-4823-9991, 010-4202-1537

- 제주한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한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산인길 17, 2동 3호 ☎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한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번길 28 ☎ 055)289-0221, 010-9331-4405
- 창원한민성결교회 충남 창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한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26번길 32 ☎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한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한민교회 경상 통영시 광도면 남해인대로 861 ☎ 055)648-9107, 010-7224-8891
- 표영한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대남로 153 ☎ 054)921-9367, 010-8433-2073
- 해운대한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여골로 76 ☎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 02)489-3766, 010-2201-0542
- 견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글로 46, 광명빌딩 5층 ☎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02)995-9951, 010-2276-1014
- 성남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팀로 95 ☎ 010-2208-5719
-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번길 2, 3층 ☎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번길 12 ☎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서빌딩 10층 ☎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일빌딩 D ☎ 031)905-2419, 010-2276-1014